

GSK, 독감백신 미국 FDA 승인 획득

글로벌 제약기업인 Glaxo SmithKline(GSK)은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독감백신 FLUARIXTM이 미국 식품의약품(FDA)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독감 유행시기에 맞춰 미국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9월6일 발표했다.

플루아릭스는 현재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 79개국에 공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3년에 출시됐다.

국내 출시 독감백신 가운데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제품은 플루아릭스가 처음이다.

플루아릭스는 한 사람이 접종받을 수 있는 1회분이 미리 주사기에 채워져 있는 형태로 공급된다.

<화학저널 2005/09/07>